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촌복합 정주공간 가꾸기



황민영 위원장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오늘 제10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전국농업기술자 협회에서 「도농녹색교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농업·농촌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역동적인 변화과정을 겪어 왔으며, 그 기간도 매우 짧았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선진농업국이 100여년에 걸쳐 진행되었던 구조적 변화를 불과 30여년 만에, 그것도 올바른 준비없이 겪게 됨으로써, 우리 농업·농촌의 위기적 상황은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농가인구 비중이 11.6%에서 7.1%로 감소하였고, 농가소득은 도시민 소득대비 2000년 80.6%, 그리고 2004년에는 74.0%로 급격히 줄어들고,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농간 소득격차의 확대는 농가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이어지고, 농가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이 중복되면서, 농촌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소비 측면에서는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04년 82kg에서 10년 후에는 65kg으로 감소될 전망이고, 농수산물 소비패턴이 다양화, 서구화 되면서, 가격보다는 안전성, 신선

도, 브랜드, 품질경쟁력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은 소비자지향의 친환경농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농업인도 유통, 가공, 식품산업의 참여로까지 확대되는 등 농업의 범위가 커지고, 농민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지금까지의 농정의 대상이 농업정책에서 농촌정책, 식품산업 정책으로 확대되고, 전원 휴식공간으로서 농어촌지역에 대한 국민적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 5일 근무에 따른 국민의 여가에 대한 관심 증가, 자연친화적 문화생활의 수요, 도농교류 활성화에 따른 농촌체험관광의 증가 등, 더 나아가 도시민들의 농어촌으로의 회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을 농촌다움,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일은 시대적 요구가 되고 있으며, 우리 농어업·농어촌이 활력을 되찾고 소득창출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는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국농업기술자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농녹색교류사업도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고, 또한 성과도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어업·농어촌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 제 10회 농업인의 날 행사로 2005년 11월11일 농협중앙회에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촌복합 정주 공간 가꾸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2005년도 도·농 녹색교류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위하여 정부는, 농업은 지속가능한 첨단생명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업인에게는 도시근로자에 상응하는 소득을 실현하며, 농촌은 농촌다움을 갖춘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만들고자하는 정책 목표를 갖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농어촌을 국민의 20%이상이 거주하는 도·농상생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도 이미 일환입니다. 2009년까지 도시에 비해 낙후된 농어촌의 복지·교육 인프라 확충 및 지역개발 촉진으로 중소도시 수준의 생활환경을 조성해서 농어촌의 삶의 질을 대폭 높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7월 농·도상생을 위한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어촌을 사람이 살 만한 곳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 도농상생, 도농간 균형발전이란 차원에서 농어촌도 도시 못지않은 삶의 조건이 완비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를 통한, 국토의 균형

발전, 농업의 지속적 발전, 그리고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선진한국으로 진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제 농촌은 농업인만이 아닌 모든 국민이 즐겨 찾고,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는 뜻이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이기도 합니다.

농특위에서 준비 중인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방안」의 내용을 보면,

첫째,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인터넷종합정보망을 구축하는 한편, 도시민이 농어촌에 성공적인 정착을 하도록 교육 및 훈련, 제도 개선, 분위기 조성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둘째, 도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는 농어촌의 기초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촌 마을의 20%수준, 약 1만개를 집중 개발하고, 2013년까지 농어촌 관광객 중 약 30%, 4천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노인복합단지, 전원마을 등을 도시근로자의 유입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셋째, 기존 농어촌 주민을 위해서는 중소도시 수준의 복지, 의료, 교육여건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환경개선 사업들의 사업통합지침을 마련하여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효율성을 갖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공간조성사업의 시행주체인 시군단위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조직체계를 정비하여, 관련사업간 연계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사업을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국가 핵심정책의 하나라고 강조하신 바 있어, 이 사업 추진을 위해 농어업특위 내에 위원회 수준의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범정부적으로 정책통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촌복합 정주공간 가꾸기

합의 틀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으로 도농교류가 활성화되고, 농어촌 방문과 정주를 통해 도시민의 삶이 크게 향상되도록 하는 일은, 농어업인에게도 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농어촌이 농어민만의 폐쇄적 공간이 아니라, 도시민과 함께 살아가는 열린 공간이라는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어 농어촌에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농정이 농업정책의 좁은 틀을 벗어나 경제·사회·환경·문화를 아우르는 통합적 농촌정책, 지역정책으로 전환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계화 시대 농업은 경쟁력이 없어서 국가경제발전에서 걸림돌이 된다는 세간의 인식을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농업과 농촌은 국민과 함께 가꾸어 가는 기간산업이자 지역이라는 의식을 갖도록 주체인 지역과 농업인들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농심(農心)은 천심(天心)이라고 했습니다. 소외에서 참여로, 갈등에서 화합으로, 평화와 번영으로의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참여정부의 국정 철학을 농심(農心)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활로가 열립니다.

미래를 열고, 희망을 만드는 미래농정, 희망농정은 국민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지, 특정계층이나 정부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뿌린 대로 거두는 농(農)의 정도에 입각, 실현가능한 구체적 혁신적 대안들을 찾아 나서야 하고, 실천에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희망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해 보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집시다. 우리 모두 합심해서 경쟁력 있는 농업, 살기 좋은 농촌을 창조하기 위하여 힘차게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10회 농업인의 날 행사 2005년도 도·농 녹색교류 국제 심포지엄 토론회 장면